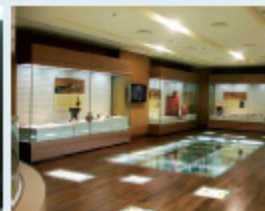


## 도심 속의 문화 쉼터-경산시립박물관

역사·문화·교육의 중심 도시 경산에 경산시립박물관(관장 김종국이 개관했다. 2007년 2월 9일에 개관한 경산시립박물관은 경산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수집하여 보존관리하고 전시하는 종합문화공간이다.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경산의 역사 속에서 경산인에 의해 생성되어 삶을 같이 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그 중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 지역문화를 지키는 도심 속의 문화 쉼터

압록인의 생활터전, 중요로운 고장 경산의 5면 영상과 정보검색 및 인터넷 코너가 설치된 『영상전시실』을 시작으로 『재민전시실』에는 '근대로부터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1900년대 가옥, 전통시장, 한창군놀이 등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자민박물관, 경산의 역사문화, 지역의 전통과 민담을 담은 우리마을이야기, 전통시장에서 일어나는 풍경을 영상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산의 농업, 세식의례, 물과 저수지, 송림한지마을과 한지의 이용 등이 전시되어 있다.

『재민전시실』은 조선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의 경산이라는 주제로 분청사기경산장동고명대질, 조선시대 백자, 포육기완과 주요 문집, 보물 제747호 최문명의명장안장, 통일신라시대 불상, 반자, 청자 및 보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압록국 시대의 경산, 청동기 시대의 경산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제3전시실』은 경산사적단, 갖바위, 압량유적, 삼성현 홍상과 일대기, 압록국 전성기 시대의 담양 고분의 모형, 압록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주제 영상, 압록국 시대, 청동기시대 경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삼성전시실에는 총 5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제3전시실』에는 압록국의 보기, 농확대, 문화재를 직접 맛추어보는 퍼즐이 설치된 체험전시실과 보기를 직접 제작하여 만들고 굽어보는 전통공예체험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또한 박물관 주변 공원에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삼층석탑

(부처의 유골인 사리를 모는 기념물), 조선시대의 석조여래좌상, 조선후기의 석인(무덤 앞에 세우는 수호신상) 등 석조물, 석탑, 불상, 석등, 비석, 부도 등 원래 경산시 유구동 신림사터에 있던 석조유물 50여점이 놓여 있어 눈길을 끈다.

개관 현재 경산시립박물관은 민속생활 2,484점, 역사자료 869점, 고서 및 고문서 361점, 고고유물 등 기타 55점 등 총 3,700여점의 유물을 확보하여 연중 다양한 유물전시행사와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테마전시를 기획하고, 다양한 역사문화 강좌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산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같이 풀어나가는 도심 속의 문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경산역사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관람객들에게 개관 이후 2월말까지 전시실 입장을 무료 관람하게 하고 있다.

특히 경산시는 인구 25만 시대를 개막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문화적 경쟁력을 갖춘 경산역사와 지역문화 지원이를 양성하고 경산시의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관람시간 : 09 : 00 ~ 18 : 00
- (입장시간 : 09 : 00 ~ 17 : 00)
- 무료관람 : 2007. 2. 9 ~ 2. 28(6일간)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월 1일, 설, 추석